

# WTO 재협상과 낙농육우산업



김인식  
문화전문이사

지난 UR 협상을 통해 이미 우리는 수입 농축산물의 위험성에 대해 익히 알고 있다. 값싼 농축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면 국내 농축산업의 존립이 어렵다는 정도는 이 나라 농민치고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피해를 주고 있고 정부 정책이 어느 수준 영향을 받고 있는지 등 세부적인 내용에는 물론 모르는 농민들도 있게 마련이다.

지난 UR 협상을 통해 이미 우리는 수입 농축산물의 위험성에 대해 익히 알고 있다. 값싼 농축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면 국내 농축산업의 존립이 어렵다는 정도는 이 나라 농민치고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피해를 주고 있고 정부 정책이 어느 수준 영향을 받고 있는지 등 세부적인 내용에는 물론 모르는 농민들도 있게 마련이다.

UR협상을 통해 '95년 1월부터 WTO 체제로 출범하게 되면서 다자무역체제로 되었고, UR협상결과는 '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적용되고, 2005년부터의 적용은 다시 재협상을 하게 되었다. 국내농민이 농사짓거나 정부가 농업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이제는 독자적으로 할 수 없고 협상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지구촌시대를 실감하게 되고, 세계를 의식해야 하는 시대인 것이다.

WTO재협상의 시도가 '99년 11월 미국 시애틀에서 있었으나 국제적으로 연대한 민간기구 즉 NGO에 의해 무산되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WTO 국민연대 회원들이 동참하여 저지에 나섰다.

필자는 당시 협회장님을 비롯한 농어업계, 소비자대표 등 30여명을 모시고 시애틀 현지에서 세계에서 모인 민간운동원들과 합류하여 WTO 반대를 외쳤고, 결과는 WTO 각료회의를 무산시켰다. 그 후 WTO에서는 회원국 각료들을 모아 재협상 회의를 카타르 도하에서 2001년 11월에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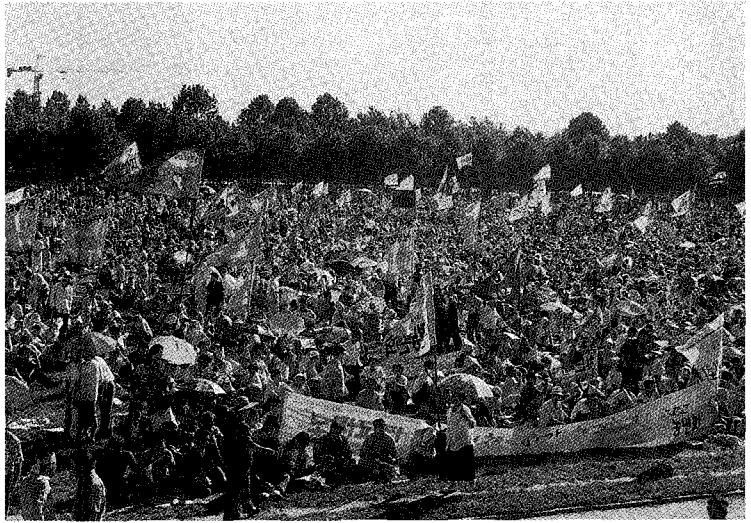
시애틀에서 저지 당한 수모를 방지하기 위해 이름도 생소한 나라에서 회의를 개최하였고, 민간인 참여를 제한시켰다. 마치 아프칸 테러전쟁이 진행중이어서 더욱 엄격한 보안과 민간인 참관을 억제시켰다. 이 도하 각료회의에서 향후 재협상의 큰 윤곽을 결정하였고, 이 결정된 각료회의의 결과를 기본으로 하여 실무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농업분야 실무협상은 이번이 없는 한 2003년 3월까지

사실상 완료해야 하는 일정을 잡았다.

UR협상에서 이미 2004년까지 쌀을 제외한 모든 농축산물은 완전 개방시켰고, 국내 농축산물 중 경쟁이 취약한 품목에 대해서만 관세를 높여 두거나 제한적 수입자유화 시킨바 있다. 따라서 재협상 결과는 더욱더 수입을 촉진시키거나 값싸게 수입되는 방향으로 이미 방향은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다만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협상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도하 각료회의를 두고 협상결과에 대해 해석은 각기 달리한다. 농축산물 수출국들로 구성된 소위 케언즈그룹의 경우 수입확대 및 보조감축을 관철시켰다면 자국의 유리한 입장을 주장하는 반면, 한국처럼 수입국가의 입장에서 방어해야 하는 나라들은 협상선언문에 명기한 「협상결과를 예단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비교역적 관심사항(NTC)을 고려한다」는 조항을 들어 사전적 예단을 경계하면서 향후 실무협상에서 가능성이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어쨌거나 WTO 협상이 무역자유화를 추구하고 있고 수출국주도로 WTO가 운영되거나와 미국의 입김으로 진행되는 현실에 비추어 농축산물 수입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국내 농축산업피해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최대한 노력하여 피해를 줄이는 협상을 해



주요 낙농육우품목 개방 약속

품 목	개방시기	2004년 관세율	비 고
탈지분유	'95	176%	2004 수입쿼터 1,034톤
전지분유	'95	176%	2004 수입쿼터 573톤
유장분말	'95	49.5%	2004 수입쿼터 54,233톤
버 터	'96	89%	2004 수입쿼터 420톤
연 유	'96	40%	2004 수입쿼터 130톤
쇠 고 기	'01	40%	2000년까지 쿼터 225천톤 수입 후 개방
종 우	'95	89.1%	2004 수입쿼터 1067두(관세 0)

야하는 것이 과제이고 국내 농축산업을 지키는 정책마련이 과제이다.

낙농육우산업 분야에 있어 WTO재협상은 기존 관세율의 인하폭이 어느 정도로 될 것이냐와 일부나마 보조되고 있는 보조금 수준이 얼마나 제한 받게 될 것이냐가 주가 되고 있다.

생우 및 쇠고기의 경우 이미 2004년까지 관세 40%이고, 분유가 2004년 176%, 버터, 유장분말, 종우가 각각 89%, 49.5%, 89.1%로 2004년에 이르게 된다. 기타 품목은 제한 없

이 이미 완전 개방된 상태이다.

축산분야 국내보조에는 대부분 허용대상 보조에 해당되고 일부는 감축대상 보조도 있다. 허용대상에 보조에는 개량, 관측, 방역, 농가경영개선 지도나, 등급판정과 분뇨처리시설과 조사료, 식육판매장이 도축시설확충축사시설 등에 따른 보조가 해당된다. 물론 직접적인 보조가 아닌 경우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지원하는 융자금도 해당된다는 해석이다. 실령 큰 도움이 안되었다 손치더라도 이것마저 줄여야 하는 입장이다.

국내보조관련사업

보조유형	지원현황('98)		비율 (B/A)	주요 지원사업
	97생산액 (A)	지원액 (B)		
■ 감축대상보조 (품목특정) ○ 소	21,073	1,831	87	○ 소수매자금, 우수축출하포상금
(품목불특정) ○ 축산경영안정자금 등		360		○ 양축자금지원(38), 축산경영자금이자보전(317), LPC원료구매자금(5) 등
■ 허용대상보조 ○ 정부서비스 (조사, 검역, 교육, 하 부구조개선 등) ○ 생산자에 대한 직접 지불(생산중립적 소 득지원, 자연재해, 구조조정투자, 환경 보전 등)		3,403 669 2,734		○ 개량, 축산관측, 가축방역, 축산농가경영개선지도, 축산 물 등 등급판정 LPC건설 등  ○ 가축분뇨처리시설, 조사료생 산기반확충, 축산물판매업소 설치, 위생도축시설확충, 축 사시설개선 등

감축보조에는 수매자금이나 양축자금, 축산경영자금의 이차보전 등이 해당된다. 관세는 내리면서 국내보조는 없애거나 줄이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경우 결국 양축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고 자칫 위험수위에 직면하게 될 우려도 있다.

선진국의 경우 이미 수년 전부터 국내 농축산업의 안정기반을 마련해둔 상황이고 협상에 의해 산업기반의 와해 우려는 없는 상황이다. 보조 역시 철저히 농가소득위주로 하여 법이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가 하면 WTO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방안을 시행 중에 있다. 우리의 경우 이렇다할 보조도 없는 가운데서 그나마 줄이거나 없애는 경우 농가소득보전은 커

녕 경영유지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한다.

특히 분유류의 관세인하와 함께 국내에서 시유 유통기한이 자율화 될 경우 예측불허의 결과도 생겨날 수 있다. 환원유 출연의 가능성이 있는가 하면 장기보관우유의 상륙마저 배제할 수 없다. 특히 WTO 협상과는 별개로 개별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어 더욱 불안하다.

한·칠레 FTA를 2001년에 제지시키기는 하였지만, 2002년에 어떻게 진행될지가 의문이고 타국과의 FTA도 계속 거론되고 있어 불안하기 그지없다. 한·미 FTA, 한·뉴FTA, 한·중·일 FTA도 계속 들먹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협회에서 WTO 협상과 관련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협회내부에 WTO 대응 낙농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낙농전문가들로 하여금 WTO 협상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방안을 마련함은 물론이고 국내 낙농정책 대안에도 철저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협회가 농단협업무를 맡고 있고 WTO 국민연대업무를 맡고 있는 이상 낙농육우분야에서의 WTO 피해는 최소화하도록 할 노력할 각오이다.

아울러 국내의 산적한 과제해결과 낙농경영에 필요한 제반대책마련에도 집중하게 될 것이다. 이미 농단협과 WTO 국민연대에서 강력히 요청한 청와대직속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법제화되고 있다. 대외적인 협상은 물론이고 위기에 처한 낙농을 비롯한 농축산업의 대응책이 마련되도록 범정부적, 범국민적 노력이 모아지도록 할 예정이다. ☎

⟨필자연락처 : 02-588-7055⟩

